

나해 부활 제5주일 기초자료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열매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

부활의 증인 바오로와 바르나바

“

...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 9,26.27)

”

바르나바는 편견이 없는 사람으로,

박해자였던 바오로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에 관해 증언해 준다.

정확히 말하자면,

바오로에게서 전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믿음의 눈을 지닌 바르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오로도, 그가 체험한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도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열매

“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5,5)

”

많은 열매란,

우리의 말과 행위로 세상 곳곳이 복음화되는 것이며,

이는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했던 일이다.

우리는 참포도나무(예수님)에 붙어 있던 가지들(제자들)을 통해

맺어진 열매이며, 우리 역시 또 다른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들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안에 머물며 그분의 생각과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는 훌륭한 길, 사랑

“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1요한 3,18)

”

여기서 "진리(알레테이아)"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늘 복음 중 "참포도나무"에서의 "참"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 참포도나무에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이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 선포는
말과 혀가 아닌,
서로 사랑하는 모범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자.